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K-MUSIC의 대표장르 이제는 국악이다 '임혜민' 연주자

가야금 연주가 임혜민입니다. 창작 국악 앙상블 J국악단 대표 임혜민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가야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치원 방과 후 활동에 가야금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금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학원에서 활동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에 수석으로 계신 박달님 선생님을 만나서 가야금을 전공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야금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했었던 정악가야금 그리고 민속악으로 분류가 되는 산조가야금 12현,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12줄 가야금이고요. 3번째는 개량 가야금인 25현 가야금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악기는 25현 가야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의 매력은?

가야금을 처음에 입문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25현이라는 가야금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가야금의 매력이라고 보면 일단은 깊은 소리가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꺾고, 떨고 그건 모두가 국악에 있어서 통용하는 소리지만 가야금에서 깊이가 있고 그렇게 굽직함이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가야금인데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함께 저의 동반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을 잠시 놓았던 적이 있다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요. 아이들을 일찍 가져서 엄마가 일찍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야금이라는 길을 이전에 걷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의지에 달렸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자신 '임혜민'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보면서도 물론 그 주변에 저의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도움이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가야금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의지 이 마음 하나로 가야금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J국악단은 어떤 곳인가요?

J국악단은 2019년도 작년부터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J국악단은 민요를 주제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민요라고 한다면, 저희가 옛날 시절을 보면 현재는 대중음악이 K-pop도 있고, 가요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하는데, 그러면 옛 시절에는 K-pop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게 바로 민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민요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해서 J국악단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J국악단의 단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임혜민이고요,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해금 연주자가 있는데요 해금은 김수진이라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편수정이라는 가야금 연주자가 한 명 더 있고요, 그리고 대금 연주자인 김종현 연주자로 4명이 구성하여서 현재 J국악단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J국악단의 꿈이 있다고?

저희가 향후 미래에서는 지금은 대중음악이 서양음악도 있고 가요도 있고 많지만 국악이 정말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음~~흠~~’ 흥얼거리는 노래로 발전이 되면서 모두가 그냥 그 옆에 항상 국악이 함께 있었으면 싶은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J국악단으로 오세요!

완주군에 새로 개발 지역구인 삼봉지구에는 J국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J국악단의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나라 악기인 국악기를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대금도 배워보실 수 있고, 가야금도 배워보실 수 있고, 해금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음악회를 열면서 즐겨볼 수 있는 소통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J국악단으로 많이 와주세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사람들의 입에서 국악을 흥얼거리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사람들의 입에서 국악을 흥얼거리게 하고 싶습니다!

완주 J국악단이 K-MUSIC의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